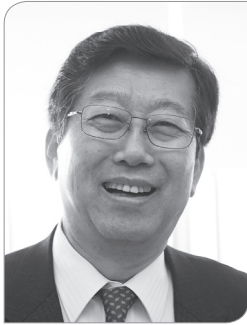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의 출범과 기대

최영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Stony Brook)
산업공학 석사, 경영과학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
기술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부장, 원자력
연수원장,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
KINS 부설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장
Senior Associate of the Asia Institute
SolBridge International School of
Business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사) 대덕클럽 회장 역임

IAEA 사무총장 안전조치 상설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2012~)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 사회에 약속
했던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Academy, INSA)가 지난 2월 19일 대전
에서 문을 열었다.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내에 설립된 INSA는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반에 대해 국내 인력 및 원자력 발전 신흥국 전문 인력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핵안보와 관련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의 및 내부시험·실습을 위한 5층 규모의 건물과 약 2만
3140m² 규모의 외부 시험 시설(Test-Bed)이 설치되어 교육 실습을 비
롯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성능 시험과 실전 훈련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외부 시험 시설은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며 1구역에는 공항만 방
사선 검색 및 출입 통제 시스템, 2구역에는 상용 물리적 방호 설비 시
스템, 3구역에는 선진 물리적 방호 시스템, 4구역에는 침입 시뮬레이
션 및 파괴 시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1구역에 설치된 장비는 현재 공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검색 장치 및
금속탐지기, 차량 하부 검색기 등이며 교육·훈련에 주로 사용될 예정
이다. 2구역에는 장비의 성능 시험을 통한 규제 기술 기준 설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사양의 탐지 및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3
구역은 최근 개발 장비나 개발될 예정인 장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4구
역은 성능 기반 규제를 위해 방호 비상 훈련을 모사할 수 있도록 모의
총기류를 구비하고 파괴 시험 또한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INSA 외부 시험 시설은 실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
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이 큰 장점이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핵안보 기
술 기준을 확립하는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핵안보 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
요성에는 공감하나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자력 발전 신흥국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 준공식.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내에 설립된 INSA는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반에 대해 국내 인력 및 원자력 발전 신흥국 전문 인력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핵안보와 관련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현재 교육과 실습이 동시에 가능한 유일한 교육훈련센터로 일본의 비슷한 시설에 비해 더욱 효율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국 이후 최대 국제 행사였던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 2014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까지 개최된 지금에도 앞서 언급한 ‘핵비확산’과 ‘핵안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용어일 수 있다. 특히 우리 생활과 연관이 많은 원자력 안전(safety) 이슈에 비해 테러로부터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보호하는 핵안보(security)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핵물질을 계량 관리하는 안전조치(safeguards)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먼 이야기로 느끼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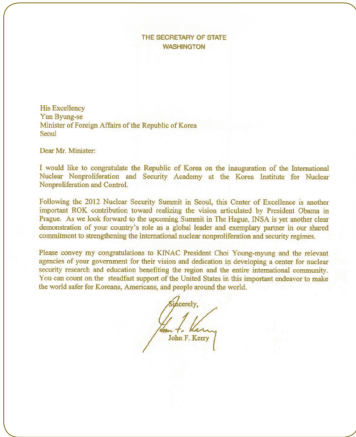
하지만 핵비확산과 핵안보는 원자력 이용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아무리 원자력 기술이 훌륭하더라도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노력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국가는 원자력 이용의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핵비확산과 핵안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원자력 자체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INSA의 개소는 바로 이러한 핵비확산 및 핵안보를 강화할 국제적 토양을 우리나라에 마련한 곳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역사에 있어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원조 수여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것이 화제가 되었듯이 원전 도입 반세기만에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에서도 더 이상 남에게 도움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INSA의 개소와 관련하여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별도의 축전을 보내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비전을 구체화 하는 한국의 또다른 공헌”이라고 기술하는 등 국제 사회는 이미 INSA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와 같은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국제 기관들과 협조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함께 각국의 훈련 참가자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



INSA의 개소와 관련하여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별도의 축전을 보내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한국의 또다른 공헌”이라고 기술하는 등 국제 사회는 이미 INSA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제핵안보교육 참석자 수료식.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INSA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 핵안보 교육은 참가자들로부터 “교육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어 실질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핵안보교육 실내 교육 장면. INSA는 아시아권에서는 현재 교육과 실습이 동시에 가능한 유일한 교육훈련센터로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핵안보교육자 대상 외부 실습 교육 실시 장면. INSA 외부 시험 시설은 실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문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INSA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 핵안보 교육은 참가자들로부터 “교육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어 실질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가 다른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 교육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하듯, INSA의 성공적 운영 역시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만이 아니라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핵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INSA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